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도자료

배포담당 황애리 홍보담당 ☎ 02-3156-7296

배포일시 2025. 5. 14. (수)

보도시기 배포 즉시

※ 매수 : 총 3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월 가정의 달 관련 최근 가족·돌봄 관련 연구보고서 소개

「저출생·가족 패널조사」 구축과 여성·가족정책의 미래 전망
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가족 부양과 돌봄 지원방안 제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5월 가정의 달 및 세계 가정의 날(5월 15일)을 맞아 최근 발간된 가족·돌봄 관련 연구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연번	연구보고서명	연구 책임자
	연구개요	
1	2024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정성미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된 국내 유일의 여성·가족 분야 패널조사로,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험, 가족구조, 일자리 등의 변화를 추적하여 우리 사회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고, 저출생·고령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과 관련한 여성·가족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었으며, 부모의 자녀 교육 부담에 대한 책임감은 높아진 반면, 성인 자녀의 부모로부터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또한, 기혼여성의 경우 결혼과 자녀 필요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태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나, 점차 평등한 부부관계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었음. ○ 이러한 가치관이나 태도의 변화는 저출생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2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①	조선미 부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가족패널조사」는 최근 가족 양상과 일·가족의 생애전망 관련 변화된 정책환경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패널조사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음. 이번 조사는 가족과 일, 생애 전망 간 성평등한 관계의 재구성을 통해 저출생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저출생·가족패널조사」 구축을 위한 2개년(2024~2025년) 계획 중 1차년도 사전연구로, 2025년 7월 주요 결과 발표 예정인 예비조사의 기초설계 및 조사영역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였음. 특히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세대와 젠더 프로그램(GGP)’이 추진하는 개인의 생애과정 및 가족 동태에 관한 국제패널조사 GGS(Generations & Gender Survey)의 한국조사로 참여함에 따라, 저출생 관련 국제비교 데이터 구축이 갖는 주요 함의를 검토하였음. ○ 본 조사는 저출생 요인과 가족 변화 양상에 대한 국제 비교 패널조사로서, 개인의 생애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형태 및 가족구성 선택 요인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으로 도출할 수 있음. 특히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 가족 변화의 전망과 정책 수요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여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3	<table border="1"> <tr> <th>비친족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th><th>김영란 연구위원</th></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회에서 가족 및 가구 형태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반 가구 중에서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의미하는 비친족 가구는 2022년 일반가구 중 2.4%(통계청, 2022)로 규모는 작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구 유형 중 하나임. ○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 분석 결과, 비친족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인 가구 78.9%, 3인 이상 가구 21.1%이며, 2인 가구 중에서는 남+여 가구 45.1%, 남+남 가구 34.8%, 여+여 가구 20.0%로 나타났으며, 비친족 가구의 구성 사유나 가구원 관계는 매우 다양했음. 비친족 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부양과 돌봄을 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혼인·혈연에 의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만 법률상 권리가 보장되며 비친족 가구는 법적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친족 가구가 법률상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함. </td><td></td></tr> </table>	비친족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김영란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회에서 가족 및 가구 형태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반 가구 중에서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의미하는 비친족 가구는 2022년 일반가구 중 2.4%(통계청, 2022)로 규모는 작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구 유형 중 하나임. ○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 분석 결과, 비친족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인 가구 78.9%, 3인 이상 가구 21.1%이며, 2인 가구 중에서는 남+여 가구 45.1%, 남+남 가구 34.8%, 여+여 가구 20.0%로 나타났으며, 비친족 가구의 구성 사유나 가구원 관계는 매우 다양했음. 비친족 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부양과 돌봄을 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혼인·혈연에 의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만 법률상 권리가 보장되며 비친족 가구는 법적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친족 가구가 법률상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함. 	
비친족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김영란 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회에서 가족 및 가구 형태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반 가구 중에서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의미하는 비친족 가구는 2022년 일반가구 중 2.4%(통계청, 2022)로 규모는 작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구 유형 중 하나임. ○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 분석 결과, 비친족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인 가구 78.9%, 3인 이상 가구 21.1%이며, 2인 가구 중에서는 남+여 가구 45.1%, 남+남 가구 34.8%, 여+여 가구 20.0%로 나타났으며, 비친족 가구의 구성 사유나 가구원 관계는 매우 다양했음. 비친족 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부양과 돌봄을 하고 있는 가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혼인·혈연에 의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만 법률상 권리가 보장되며 비친족 가구는 법적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친족 가구가 법률상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함. 					
4	<table border="1"> <tr> <th>자녀 양육 가구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th><th>송효진 선임연구위원</th></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자녀 양육 가구 지원 방식을 국가 비교 등을 통해 검토하고, 젠더 불평등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함. ○ 연구 결과, 가족 지출 수준의 확대는 양부모 가구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도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한국의 가족 지출 수준은 GDP 대비 1.4%에 불과해 OECD 평균(2.1%) 보다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함. 가족 특성을 반영한 한부모가족 지원 역시 강화되어야 함.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및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의 적절한 조합으로 한부모의 자립과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 또한 GDP 대비 가족 지출 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음. ○ 자녀 양육 가구 현금지원제도는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수단으로서의 토대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자녀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에서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td><td></td></tr> </table>	자녀 양육 가구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	송효진 선임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자녀 양육 가구 지원 방식을 국가 비교 등을 통해 검토하고, 젠더 불평등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함. ○ 연구 결과, 가족 지출 수준의 확대는 양부모 가구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도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한국의 가족 지출 수준은 GDP 대비 1.4%에 불과해 OECD 평균(2.1%) 보다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함. 가족 특성을 반영한 한부모가족 지원 역시 강화되어야 함.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및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의 적절한 조합으로 한부모의 자립과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 또한 GDP 대비 가족 지출 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음. ○ 자녀 양육 가구 현금지원제도는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수단으로서의 토대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자녀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에서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자녀 양육 가구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국가 비교 연구	송효진 선임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자녀 양육 가구 지원 방식을 국가 비교 등을 통해 검토하고, 젠더 불평등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함. ○ 연구 결과, 가족 지출 수준의 확대는 양부모 가구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도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한국의 가족 지출 수준은 GDP 대비 1.4%에 불과해 OECD 평균(2.1%) 보다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함. 가족 특성을 반영한 한부모가족 지원 역시 강화되어야 함.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및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의 적절한 조합으로 한부모의 자립과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 또한 GDP 대비 가족 지출 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여성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음. ○ 자녀 양육 가구 현금지원제도는 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수단으로서의 토대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자녀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에서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5	젠더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Ⅲ): 고령화 시대, 노인돌봄 격차 해소 전략	마경희 선임연구위원
6	가족 다양성과 수요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공급과 사각지대 연구	정가원 선임연구위원
7	조손가족 통합적 지원 방안 연구	김소영 연구위원

※ 연구보고서 원본(PDF)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연구보고서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do>